

연극, 글쓰기, 책

-아산정책연구원 제12회 아산서평모임 발제문(2017.01.25.)

(안치운, 호서대학교 연극학과 교수, 연극평론가)

독창적original이라는 것은 기원origin에 가깝다는 의미. Etre original, c'est être près de l'origine.

1. 연극에 관한 글쓰기는 오늘날 연극은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마이너 예술의 의미를 사유하는 데 있다.

1.1 예술(교육)은 분석, 실습, 테크닉과도 관련이 없다. 예술(교육)은 일종의 자기최면 상태를 보여주고, 가르친다. 노래가 육체로 전달되어 육체 내부에서 새겨지는 것처럼. 돌아올 수 없는 여행과도 같은 연극(예술)은, 실천도, 글쓰기도 교육도 즐거움, 쾌락이어야 한다. 하나뿐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나간 것(기억)의 쾌락, 포도주처럼 과거와 관계맺는 형식으로서 쾌락, 그렇게 해서 상실과 기억이 행복한 글쓰기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 이 책은 오래된 예술(작품)에서는 과거가 새어나온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썼다.

1.1.1 이 책의 글쓰기는 예술의 과거화일 터에 관한 것이다. 그리스 고전 비극인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의 작품에서는 어느 사건이든 모두 극이 시작되기도 전에 발생된 것들이다. 비극은 과거로 맹렬하게 달려드는 옛날이다. 한국 작가로는 오태석, 최인훈, 윤영선, 기국서, 프랑스 작가로는 베르나르 마리 콜테스, 독일의 피나 바위쉬, 폴란드의 타데우즈 칸토르 그리고 관객, 자연, 몸과 미디어의 언어, 연극치료, 교육연극에 이르기까지.

1.2 음악에서 연주의 끝에, 감상의 끝에 이르면 분명한 침묵 속에 빠진다. 그것은 울고 싶은 욕구의 극치이다. 글이나 공연으로 이루어지는 연극적 체험을 어떻게 글로 옮길 수 있는가?를 묻고 싶었다.

1.2.1 음악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멀리서인 듯이Wie aus der ferne. (Comme de loin), ”마치 피부 밑에서 들리듯이Comme si on entendait sous la peau.“(령다면, 연극은 잘 보는 것을 보여주고, 배우는 예술이 아니겠는가! 인간은 보는 존재라고 한다면, 연극은 인간의 영혼도 육체로 구현하는 예술이고, 육체의 아름다움이야말로 덕성이라고 말하는 예술이다.

1.2.2 그림의 매력, 특히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매력은 “un jour plus insistant que la clarté, 즉 광명보다 더 집요한 빛. 그리고 밤이 될 듯 말 듯한à peine nocturne, 겨우 칠해진, 가까스로 거무스레한 색깔이 도는 것à peine faite, encore à peine brune. 그림에서 우리는 인간의 몸을 감싸는 것은 빛이 아니라 먼지, 허약함, 희미한 빛, 침묵을 본다. (그 반대가 신이다). 먼지는 빛을 발하는 황금의 반대이다.

1.2.3 사물 위에 살짝 내려앉은 먼지, 빛바람, 약간의 마모가 주는 매력을 표현할 수 있는 희랍어, pinos, chnous, rhypos와 같은 단어들. 그것들은 사물의 형태에 보태진 세월의 흔적과도 같은 것. 실질에 추가되는 불투명성 같은 것. 소멸된 시간과 같은 연극의 부재, 그것에 가 닿는 글쓰기.

1.2.4 연극은 기억의 눈theo, theoros, theatre, theoria.

1.3 시민, 교양으로서 연극 글쓰기

1.3.1 정신의 육성cultura animi, 그것은 마음의 경작culture. 밭을 가는 일, 무늬, 삶의 토포스에 따라 삶의 푸르름이 달라지는 것. 이를 위한 것이 삶이고, 그 안에 12세기 르네상스 대학 즉 교양 공동체가 탄생했던 것.

1.3.2 도시국가 폴리스, 이 곳은 인간을 형성하는 것-올림피아, 델포이, 쿠스, 심포지엄, 아고라, 극장(교양의 터전) "내가 아무 것도 모른다는 것만을 나는 안다", "그대 자신을 알라 gnoti sauton)" "도가 지나쳐서는 안된다meden agon", 델포이 신전 정면에 새겨진 비문. 소포클레스는 이 최초의 철학자, 애지자. 나만의 신령-내면diamon을 믿는 죄로 죽음. 지식인의 자유와 죽음.

1.4. 연극이 이론화되고, 특수화되고, 개별화된다. 모든 이들을 위한 연극, 모든 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연극인 시민연극은 가능한가? 그것은 모든 이들이 예로부터 이상적 인간을 염원하고 형성해온 것과 같다. 연극을 통한 이상적 인간, 사회의 구현은 한 나라, 한 사회의 도덕성과 문화의 이상을 상징하고 구현한다는 점에서 문화(연극) 엘리트, 권력 엘리트와는 크게 구별된다.1) 낯설게 보이는 단어이지만 군자, honnête homme, gentlemen, 즉 시민연극은 교양이고, 교양(인)을 위한 연극이다. 시민연극은 우리들에게 스펙을 위한 연극도, 이론이 아닌 삶의 스토리가 되어야 한다.

1.4.1 연극을 통한 교양, 교양인은 무슨 뜻인가? 누구를 말하는가? 이 질문은 오늘날 한국연극이 잇고 있는 교양으로서의 연극 즉 고전 중심의 인문학적 배움과 취향에 관한 것이다. 연극은 언제나 기억의 형식이고, 그것은 늘 앞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다보는, 옛 것, 그러니까 고전을 향한다. 교양으로서 시민연극은 고전에 밝은 사람을 키운다.

1.4.2 교양을 우습게 여기는 오늘날, 교양과목이 천대받는 지금, 여기, 연극의 가치도 마찬가지로 지일 터이다. 연극은 교양 이념으로부터 출발한다. 그 이념의 원천은 고대 그리스 교양 paideia와 인문humanitas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것이 인문학의 요체이며 시민연극의 핵심이다. 연극은 언제나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문제를 다룬다. 연극의 핵심은 여기에 있고, 이를 위한 것이 교양의 핵심이다. 엄격하게 말해서 시민연극은 실용이 아니라 교양을 위한 과목이다. 예술인 연극이 삶의 교양인 것처럼. 그러나 오늘날 세상은 교양이 묻히고 실용이 판을 치는 곳이다. 교양으로서 시민연극, 교양은 culture, education, Bildung 즉 일반교양general education이다. 교양은 어원처럼 영구불변의 원리가 아니라 시공과 역사적 상황에 따라 변모한다.

1.4.3 연극(연구, 글쓰기)는 인문학적 앎 즉 철학, 수사학(문학)과 어떻게 같은 자리에 놓일 수 있는가? 교양이란 묻고 탐색하는 행위, 그 배움에서 장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살롱, 광장(작게는 극장)이 그것이다. 이것은 여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것이 폐쇄되고, 불가능하게 되면 정신의 귀양과 같은 서재 공간이 생긴다. 교양으로서 연극은 서재가 아니라 그 바깥에 있고, 연극은 바깥에서 떠도는 이들을 위한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살롱과 광장은 사람을 만나는 곳이다. 여기에 취미와 놀이의 중요성이 생기고, 기쁨이 자리 잡는다. 그것이 예(藝)이다. 유(遊)어(於)예(藝), 즉 "예 속에 놀이", 이것이 시민연극의 핵심이론이다. 삶의 스타일리스트가

1) 극장이라는 시민 전체의 만남의 공간, 자기 정화의 장(올림피아 경기장은 금녀의 공간).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모방, 창작은 역사보다 훨씬 더 철학적이며 가치가 높다는 정언, 보편적-개별적. 카타르시스-탄생의 굴레로부터 해방되고 자기정화, 황홀경, 현실세계를 떠나는 chorus-choris(기쁨)

되는 것.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고, 특정한 이데올로기에 함몰된 지식인도 아닌 삶을 즐기는 군자불기(君子不器)와 같은 사교적, 사회적, 자유인의 존재가 되는 것.

1.4.4 연극은 사람들을 집 밖으로 끌어내어, 무엇을,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1.4.5 오늘날 극장은, 연극은 사회적 담론, 사교의 토포스인가?

1.4.6 magazine(창고, 저장소)으로서 연극, 극장?

1.4.7 음유시인, 유랑극단을 거쳐 극단 극단의 탄생은 다시 가능한가?

1.4.8 근대 연극처럼,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연극, 소수 지식인이 아니라 교양인, 폭넓은 중산층 계층이 바라는 형태로 변모(그것이 견고한 가치를 보증하려는 리얼리즘의 한 축이다.)가 될 수 있는가?

1.5 『연극, 기억의 현상학』(2016)에 대하여

: 생각한다는 뜻을 지닌 팡세penser는 모오다라는 라틴어pensare에서 왔다. 플라톤은 우리들의 앎은 어렵פות한 추억, 회상이라고 했다.(여기에 말onomata/목소리phonè/자연physis/진리aletheia이 있다.) 앎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고, 기억하는 것. 예술은 자신을 스스로 과거화 시키면서 현상하는 방식이며, 따라서 자신의 일상적인 양태와 대응하던 습관적 인식능력을 뛰어넘는 모습이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사물이 자신의 본성을 탁월하게 향유하고 있는 모습이다.

1.5.1 기억의 표현이야말로 연극의 매혹: 그것은 연극의 팬fan이 되는 것. 연극이라는 사원fanum에 들어가는 것이고, 연극을 보고 벼락맞은 나무fanaticus처럼 되는 것이다. 연극에는 벼락맞은 것 같은 유령, 죽은 자, 미친 자들이 그래서 산 자보다 더 매혹적일 때가 많다. 유령, 죽음은 산 자를 유혹하기, 집으로부터 떼어놓기.

1.5.2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자서전, 기억이여, 말하라speak, memory,1966), 시간을 초월한 무아경.

1.5.3 기억학은 유령학hantologie이다. 데리다의 정의처럼, 귀신은 다시 돌아오는 것 re-venant, 이른바 자신의 회귀. 사라진 것이 다시 저기 있음. 부재의 현존. 존재함to be과 존재하지 않음not to be 사이의 대립이 없는 것.

1.5.4 도시와 국가. 진리와 반진리, 은폐와 비은폐aletheia, 폴리스pol-표시 즉, 도시는 비은폐의 장소. 모든 존재자들이 자신의 본질 속에서 출현하게 되는 곳. 연극은 폴리스의 예술인 이유는 여기에 있다.

2. 연극의 처음, 연극의 끝은 글이었다. 연극은 글로 시작하고, 글로 자신의 흔적을 남긴다. 연극의 책이란 연극이 제 스스로 출생신고서이며 입적기록이며, 사후 증명기록이다.

2.1 연극은 책을 통하여 연극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었다. 연극과 사회라는 주제는 연극 내적으로는 연극의 발생, 완성, 영향에 관한 것이고, 연극 외적으로는 연극의 학제적 기록이다.

2.1.1 『고려도경』1123년(인종 1) 고려 중기 송나라 사절의 한 사람으로 고려에 왔던 서경(徐兢)이 지은 책.1.개설 전40권. 정식명칭은 『선화봉사 고려 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인데, 흔히 줄여서 『고려 도경』이라 부른다.

2.1.2 『악학궤범』: 1493년(성종 24) 조선시대의 의궤와 악보를 정리하여 성현 등이 편찬한 악서(樂書). 1610년(광해군 2)에 복각되었으며, 1655년(효종 6)과 1743년(영조 19)에 다시 복각되었다.



기석설연지도(善碩設宴之圖)

1621년(광해군 13)에 개최된 기로회(耆老會) 모습. 모임에는 광해군 대에 활약한 70세 이상의 고위관리 13명이 참석했는데, 참석자 부분은 없어지고 시중을 들던 여인들 모습이 남아 있다. 가야금, 해금, 피리 등을 연주하는 악공들의 모습이 보인다. 1축, 비단채색도.

2.1.3 『악서고존樂書孤存』(정약용)

우리나라의 음악이론·성률(聲律)·악기 등의 기록을 고증한 음악서. 12권 3책. 사본. 출판연대는 미상이며, 저자의 문집인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에 전하고 있다.

2.2 『조선연극사』(김재철, 조선어문학회, 조선어문학총서3:1933, 학예사:1939)

1939년 5월 학예사에서 문고판으로 펴냈다. 지은이가 경성제국대학 졸업논문으로 썼던 <한국연극의 사적 연구>를 제목을 바꾸어 펴낸 것이다. 김태준의 서문, 지은이의 소전·본문·부록 순으로 되어 있다. 당시 아무도 손대지 않았던 한국연극의 역사적 맥락을 서술한 책으로 한국의 근현대 연극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조선연극통사,

2.3. 『신극사 이야기』(안종화, 1955)

2.4 『한국신극사 연구』/한국연극사/한국가면극/한국무속과 연희(1966-90년대)(이두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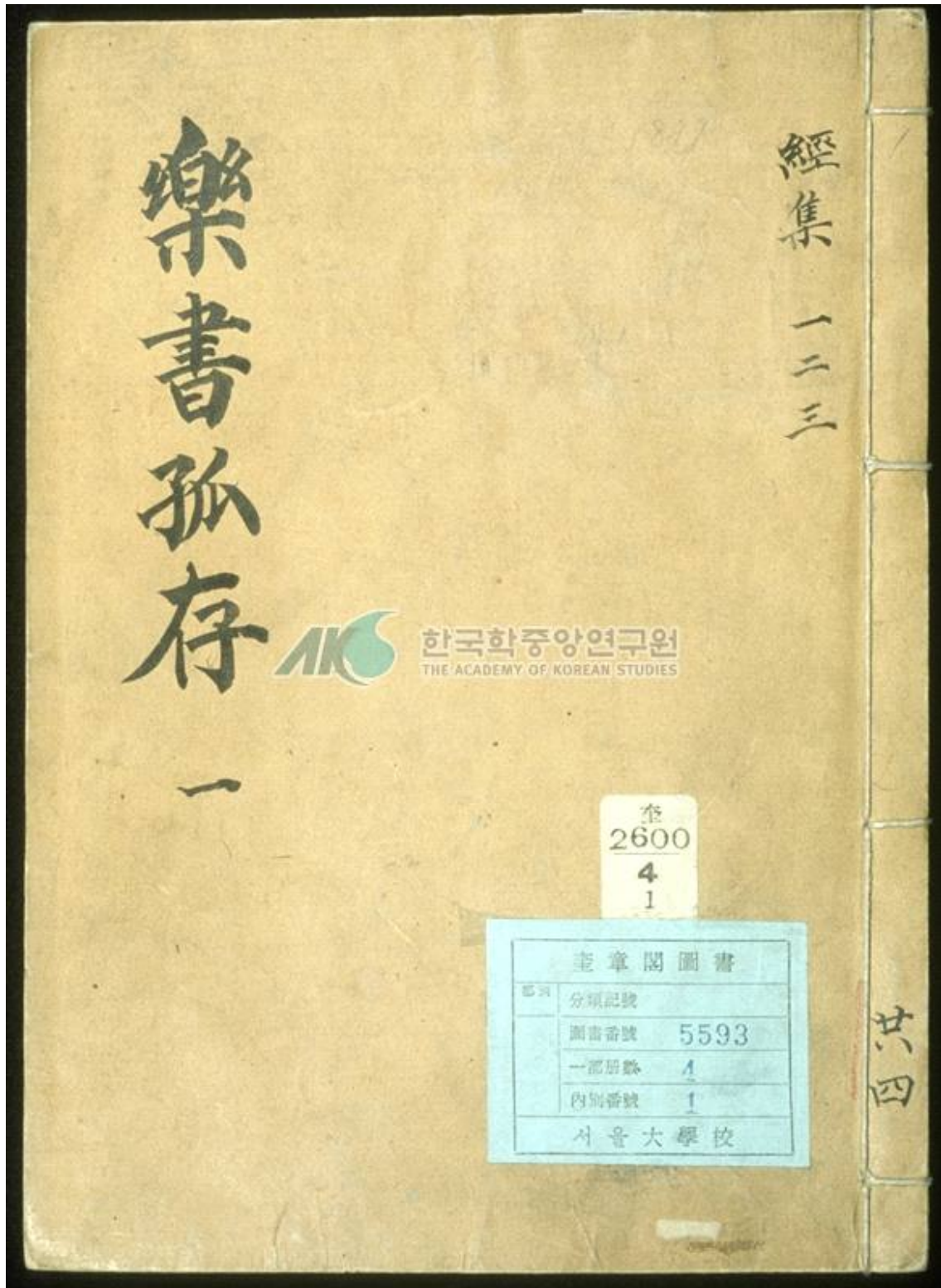
樂學軌範卷之一

六十調

古正律墨書半聲
 並作陰字又書半聲
 於下今正律墨書變律除字
 於本字只加半字清聲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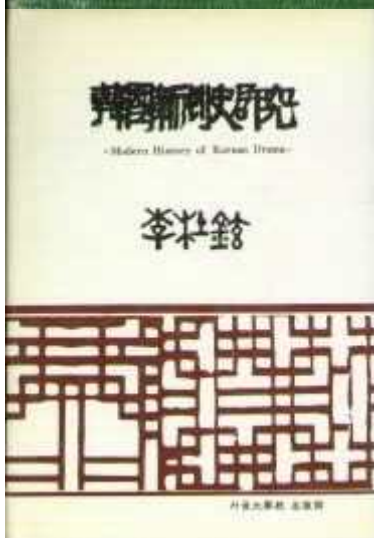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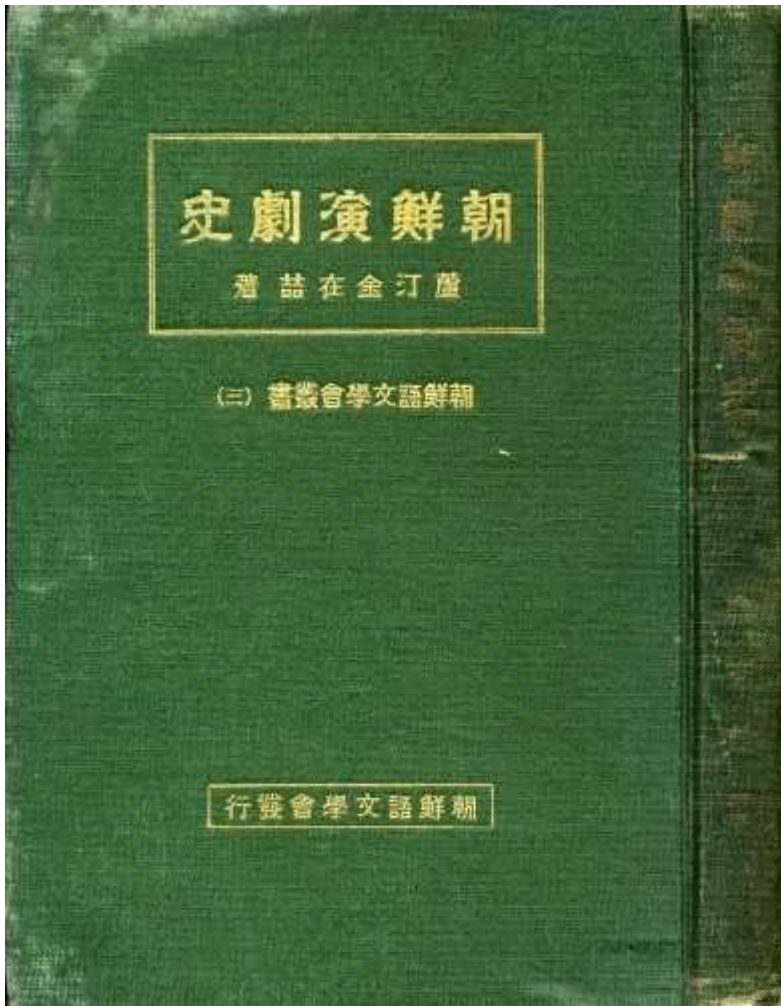
商調	宮調	羽調	徵調	角調	商調	宮調
應 _下	大 _五	夾 _上	仲 _上	夷 _上	無 _下	黃 _五
汰 _下	夾 _上	仲 _上	林 _上	無 _下	橫 _五	太 _上
浹 _下	仲 _上	林 _上	南 _上	橫 _五	汰 _上	姑 _上
冲	林	南	應	汰	澁	蕤
澁 _下	夷 _上	無 _下	橫 _五	浹 _上	冲 _上	林 _上
洩 _上	無 _下	橫 _五	汰 _上	冲 _上	淋 _上	南 _上
灑	橫 _五	汰 _上	姑 _上	淋 _上	灑	應
						變宮
						變徵
						徵
						角
						商
						宮





2.5 『한국극장사』/한국희곡사(유민영, 198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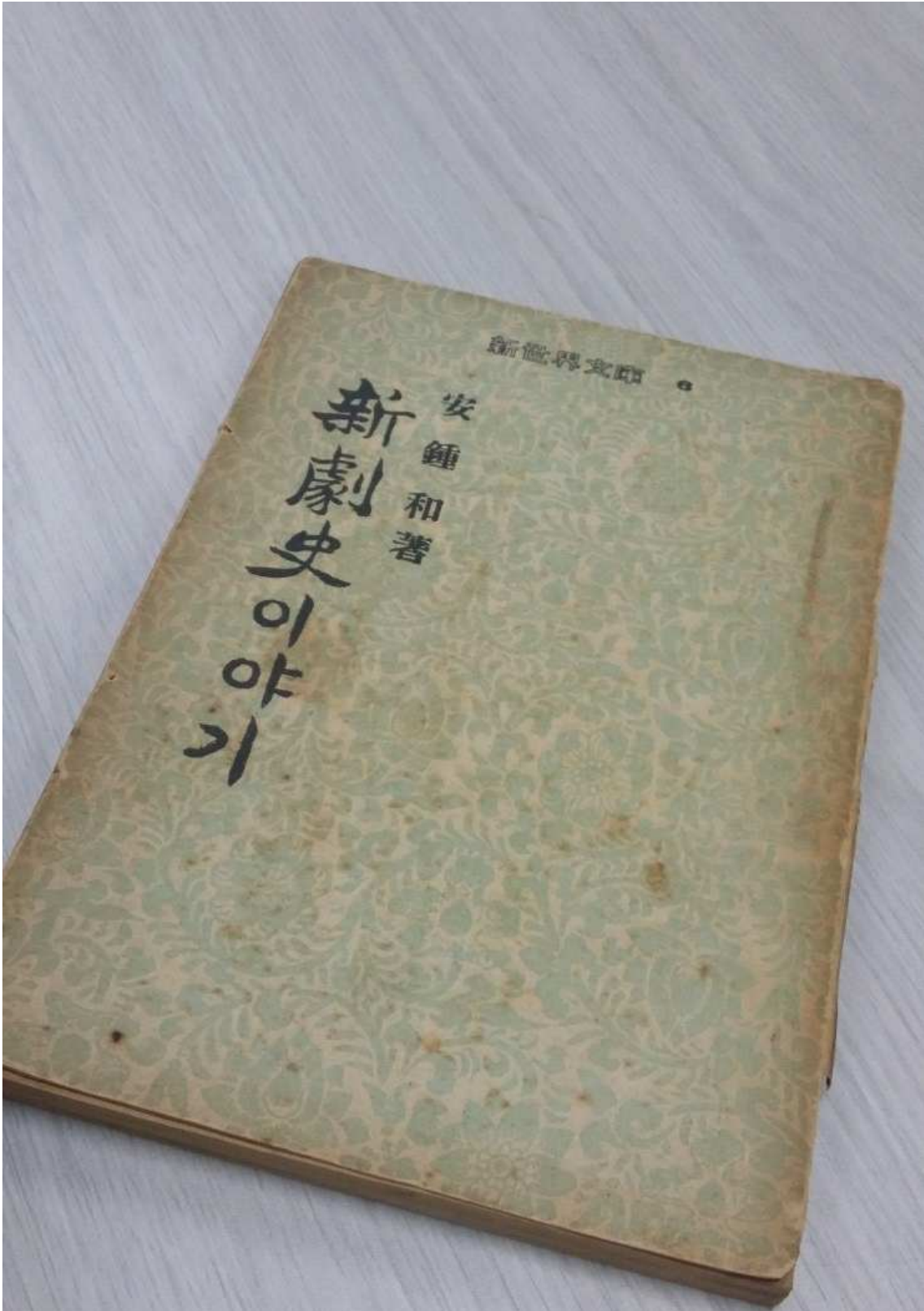
2.6 1980년대 이후 한국연극에서, 비평, 사적인 글쓰기, 비평담론의 개화.



3. 이 책을 쓰면서 내건 질문들: 연극은 어떻게 교양이 되고, 교양으로서 시민연극을 위한 담론은 무엇인가?

3.1 오늘날 연극 공부하는 이는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하여

3.2 나는 정말 연극을 공부하는 “좋은 사람”인가?



- 3.3 우리들에게 절박한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절박한 문제 앞에 놓여있는가?
3.4 우리에게 연극은, 교양으로서 연극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3.5 “서양연극에서 시민연극의 이념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은 소포클레스의 「안티고



네」이다. 실정법과 자연법의 싸움으로 여기기도 한다.

4. 교양의 확대

: 돌이켜 보면, 삶과 문명의 이해를 돕는 공부는 유럽에 기울어져 있었다.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줄곧 그랬다. 유럽의 교양이 내 청춘이 의지했던 교양이었고, 문화였다. 연극을 전공한 내가 알고, 즐기는 문학과 예술의 전형적 토포스는 서양의 그것에서 비롯되었다.

4.1 공화국, 공화국 정신. 공적인 관객인 코러스의 합창에서 드러나는 객관적 정신의 표현이다.

4.2 앞으로 숙제: 아시아, 라틴 문명에 대한 교양의 필요성이 절대적인 이유. 아시아 문화교류를 위해서는, 아시아 다른 나라에서 온 이들을 배척하지 말고, 그들의 문명과 삶에 대한 교양을 키우는 이들이 많아져야 할 것이다.

5. 시민연극 이론에 앞서서: 시민 공동체civitas, 공동체의 시민res publica-포럼(광장)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것.

5.1 정치적 교양으로서 연극: 글쓰는 지적 교양과 공공선에 참가하는 교양 연극. 지금, 여기, 우리의 시민적 휴머니즘을 위한 연극, 연극은 시민사회 속 시장 원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득과 경쟁의 원리 혹은 그것을 벗어난 공공성의 원리가 따로 있는가?

5.2 연극의 세속화와 세속주의에 대한 경계: 현대연극이란 세속화의 산물이다. 삶의 세속화, 연극의 세속화는 무엇보다도 삶을 지배했던 종교와 형이상학으로부터 해방된 삶과 연극을 뜻한다.(2017.01.25.)